

## 한미약품 ‘아모잘탄’ SCI급 학술지 게재

고혈압치료 복합신약제

한미약품은 세계고혈압학회와 유럽 고혈압 학회 공식 저널이자 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Hypertension’에 고혈압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의 임상 4상 하위분석 연구결과가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아모잘탄의 국제학술지 게재는 이번이 11번째로, 한미약품은 현재까지 SCI급 6개, SCIE급 3개 등 유수의 국제 학술지에 아모잘탄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등재했다.

아모잘탄은 고혈압 치료 성분인 CCB와 또다른 고혈압 치료 성분 ARB를 결합한 복합신약으로, 작년 국내 전문의약품 처방 매출 10위권 내에 진입한 유일한 국산 의약품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아모잘탄과 ARB/Diuretics(이뇨제) 복합제간 24시간 실시간 중심혈압, 활동혈압, 맥파전달속도 등 다양한 혈액학적 지표들을 세계 최초로 비교 평가한 연구다. 연구진은 이번 임상에 참여한 231명의 환자 중 아모잘탄 투여 환자 70명과 ARB/Diuretics(이뇨제) 복합제 투여 환자 72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여 20주 후 경동맥-대퇴동맥의 맥파전달속도(이하맥파전달속도) 변화량이 아모잘탄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세경 기자

## 이대목동병원-양천구보건소 ‘염분조절’ 쿠킹 클래스 개최

이대목동병원은 양천구 보건소와 함께 오는 25일 신월보건지소 4층 영양교실에서 ‘나소으로 만드는 맞춤 건강식-염분 조절 식’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혈액투석으로 식사요법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양천구 보건소와 이대목동병원이 ‘혈액투석환자 영양 식습관 개선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수빈 임상영양사의 영양 교육과 이형민 요리 연구가가 조리 실습을 진행하며, 이어 류동열 이대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대화 및 식사 시간으로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양천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세경 기자

## GC녹십자 액상형 진통제 ‘타미노펜’

GC녹십자는 액상형 진통제 ‘타미노펜(사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타미노펜’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해열진통제로, 두통과 발열, 통증,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성분에 대해 알러지 등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복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 성분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 평가한 안전성 등급에서 임산부와 수유부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B등급에 포함되었다. 이 제품은 연질 캡슐형으로 만들어져 정제 제품 대비 체내 흡수율이 높아 치료효과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제형의 단점인 속쓰림을 비롯한 위장 관련 부작용도 적다. /이세경 기자

## 놀이터부터 키즈 메뉴·공연까지

# 외식업계, 온가족 만족하는 특화매장 ‘바람’

최근 외식업계에서 가족 외식하기 좋은 매장을 오픈해 가족 단위 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외식은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와 메뉴를 골라야 하고 특히 아이들의 있는 경우 외식 장소 선택이 쉽지 않다. 이에 업계에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넓은 공간을 마련해 가족 외식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빅스는 지난해 6월 CJ제일제당센터점을 시작으로 명동, 합정역, 계산 등에서 상권 특성과 고객 니즈를 분석해 매장별 특화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어려운 외식 환경 속에서도 계산점은 지난해 대비 고객수가 30% 가량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정역점은 빅스 평균 고객 대비 45%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빅스는 특화 매장을 지방 거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전 둔산점과 수원 아주대점을 상권 특성과 고객 니즈에 따라 각각 리뉴얼 오픈했다.

이랜드파크의 한식 샐러드바 자연별곡도 가족 외식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별곡일산점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족외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가족 단위 고객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맞춰 키즈 놀이터 ‘코코몽 놀이방’을 매장 내에 설치하



디딤의 서초 다이닝 포레스트.

**서초 다이닝 포레스트**  
유아용 생수·무독성 식기 구비  
빅스 합정역점 고객수 45% 경증  
자연별곡 키즈존·토들러존 마련

는 한편,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키즈메뉴가 제공되는 ‘코코몽 요리나라’ 코너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기존 매장과는 다른 모던 콘셉트의 화사한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한 내부 인테리어다. 전체적으로 밝은 조명과 깔끔한 매장 분위기를 연출해 가족외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장 내 코코몽 키즈놀이터를 설치 운영한다. 외식을 하면서도 아이의 안전이 우선



CJ푸드빌의 빅스 계산점.

/각사

인 부모들을 위해 연령별 키즈존과 토들러존을 함께 구성했고 놀이터 내에는 볼풀장, 미끄럼틀, 편백존, 오락기 등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교촌치킨은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옆에 120평 규모의 특화매장 ‘교촌치킨 청라호수공원점’을 오픈했다.

청라호수공원점은 전국 교촌치킨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다. 매장 내부에는 대형 멀티비전과 40개의 생맥주 케그를 활용한 오브제 인테리어로 스포츠와 치맥을 즐기는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과일주스와 브런치 슝인슝(s hop in shop) 매장인 디디밴드 공연이 가능한 장소를 마련해 외식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존 교촌치킨 매장보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외식기업 디딤이 운영하는 식당가 ‘서초 다이닝 포레스트’에는 한식, 해산물, 중식, 분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가족 외식하기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다.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마련돼 있어 아이와 함께 온 가족 고객들이 방문하기 좋다.

매장 내에는 유아 및 어린이 고객들이 편안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급 하이체어를 구비하고 있으며, 무독성 재질의 유아용 식기, 실리콘 턱받이, 아기 전용 생수를 제공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을 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계에서는 아이 어른 모두가 와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가족외식이 많은 주말 날들이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8일 인천 송도 셀트리온 본사에서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셀트리온, 산업은행과 손잡고 2000억 규모 바이오펀드 조성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MOU

셀트리온그룹은 KDB산업은행과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인천 송도 셀트리온 본사에서 서명식을 갖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기우성 부회장, 셀트리온헬스케어 김형기 부회장,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오진교 부부장, 서성호 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실무진 40여 명이 참석했다.

셀트리온과 산업은행은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사는 향후 바

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헬스 육성 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 이달부터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성장 노하우가 산업은행의 든든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접목된다면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하우 전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씨제이헬스케어 신약 ‘케이캡’ 印尼 진출

동남아 제약사 칼베에 5년간 공급

씨제이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동남아시아 1위 제약사 ‘칼베(KALBE)’와 손 잡고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 수출 계약으로 우리나라 30호 신약 케이캡은 국내 및 중국, 베트남, 중남미 17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최근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칼베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을 인도네시아에 독점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씨제이헬스케어는 출시 후 5년 간 칼베 사에 케이캡 정 완

제품을 공급하고, 칼베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 케이캡이 진출할 인도네시아는 약 2억7000만 명의 인구가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새로운 작용기전(P-CAB;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은 우리나라 30호 신약으로 허가 받고 올해 3월 국내에 출시됐다.

출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까지 누적 102억 원을 기록한 케이캡은 최근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외에 위궤양을 적응증으로 추가하며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세경 기자

## 중근당 유럽당뇨병학회서 ‘듀비에’ 안전성 입증

대사증후군 개선 연구결과 발표

중근당은 17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2019 유럽 당뇨병학회(EASD)에서 당뇨병 신약 ‘듀비에’의 대사증후군 개선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듀비에의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

내 27개 기관에서 247명의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임상결과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신근 교수는 “최근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듀비에의 연구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듀비에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